

# 남북불교계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뜻 모아

## 5월 19~23일 평양에서 남·북대표단 만나 공동합의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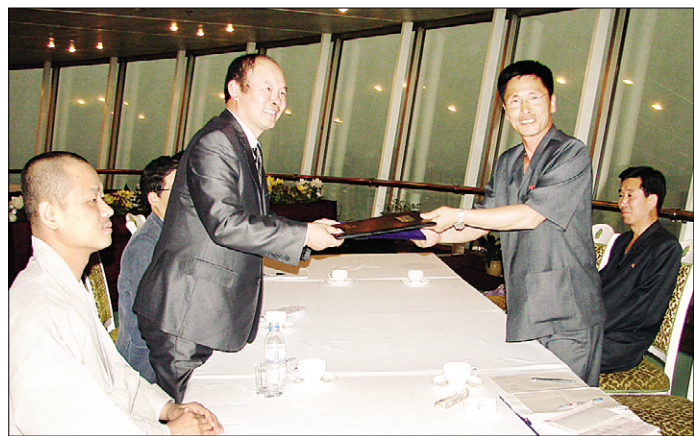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악화일로인 가운데, 남북불교계가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에 대한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으로 구성된 남측대표단은 5월 19~23일 조선 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2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측대표단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을 비롯해 서울 시의회 부두원 의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정순영 정보실장 등 6인이다.

이들은 방북 후 조불련 심상진 위원장과 리해용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조불련 전국신도회 리현숙 부회장 등을 만나 반환대상 문화재에 대한 반환 방안과 활동내역을 공유하고 문화재반환운동의 민족적 공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에 합의했다.

남북불교계는 공동합의서를 통해 "남북이 일본에 빼앗긴 문화재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미국 보스턴 박물관이 소장한 귀중한 민족문화재인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를 소장한 보스턴미술관장과 '지장경'·'금니사경' 등



남북불교계가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위). 아래는 남측 대표단.



구' 반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남북불교계는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를 소장한 보스턴미술관장과 '지장경'·'금니사경' 등

한데다 컬렉션을 소장한 하버드대 아서 세를러 박물관장에게 우리 문화재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도 작성했다.

특히 남북불교계는 '조선왕실의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례'의 반환을 촉구했다.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야망의 노골화 등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염려하는 반일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남북불교계는 반일공동성명에서 '일본이 약탈해간 우리 민족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을 일본의 독도강탈 야망 및 군국주의 책동 포기 등을 촉구했다.

남측대표단 일원이었던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어려운 남북관계에서도 북측의 환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일본 국내청이 소장한 '조선왕실의례' 등 해외반출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불교계는 10월 이후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를 위한 대규모 토론회 개최를 평양이나 중국 북경에서 열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공개사과 촉구

### 찬불가 물의 의원 사과

민주당 이윤석 국회의원무안·신안이 5월 14일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찬불가를 불러 지역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무안 불불사 주지 지오 스님과 신도 70여명이 5월 17일 불불사에서 종교평화 결의대회를 갖고 이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지오 스님 등은 결의문을 통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개최된 제1회 황토골 은빛교실 연합축제 한마당에서 이 의원이 특정종교 찬송가를 공개적으로 부른 것은 종교평화 행위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지역 20개 종교계 노인시설인 연합행사에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라는 내용의 찬송가 '사랑'을 부른 것은 의원이 26일 불불사를 찾아 지역 스님들에게 "종교평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초 27일 사과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등을 발송할 예정이었던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처벌규정이 없는 법제도로 인해 공직자 종교평화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불자들의 끊임없는 제보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태국왕실 기증 불상, 불국사에 보관** 불교국가 태국 왕실이 2007년 11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탄생 8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조성한 불상이 경주 불국사에 불안됐다. 불국사(주지 성타)는 지난 1월 태국 왕실이 세계불교도우의회(WFBI)에 기탁한 19개국에 기증한 불상을 5월 24일 불국사 부설 경주불교문화회관(관장 조성)에서 성타 스님, 종성 스님, 프라담바라자리아 스님과 WFB 판와나메디 총재, WFB 한국본부 임선교 명예회장 등 300여 대중에 참석한 가운데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 “방송법 개정 법률안” 입법중단

###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사장단 성명서 발표

불교방송 등 종교방송 사장단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5월 15일)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교방송(BBS)과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 사장단은 5월 20일 '종교방송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방송 사장단은 성명서에서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상파 방송 매체의 균형발전을 무너뜨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지상파 방송사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단은 "이번 법률안 입법은 방송 장악을 위한 추악한 음모"라며 "법안개정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 용주사 인근 구역 합리적 조정

화성 용주사 인근 용·건릉을 비롯해 문화재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은 5월 26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정됐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8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35만9294㎡다. 이 중 49%인 9490

만29㎡가 사유지"라며 "올해 안으로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의 2009년 적정성 검토 대상에는 국보 제30호 분황사석탑, 국보 제34호 장남술정리동삼층석탑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 3건이 포함됐다. 한편,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후 매 10년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 등을 평가·고려해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동섭 기자

## 반상회보에 '삼국유사' 있다

### 군위군 '삼국유사' 연재로 관심 환기

경북 군위군이 반상회보를 통해 <삼국유사>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군위군(군수 박영언)은 반상회보를 통해 특집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깊이 알기'를 6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군내 반상회보를 통해 연재하기로 했다.

군위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삼국유사>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재는 '군위와 <삼국유사>의 첫 만남'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은 어떤 분인가, <삼국유사> 재미있게 보기 등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게재될 예정이다.

박영언 군위군수는 "이번 특집연재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



4월 29일 창립된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삼국유사>와 그 집필자인 군위군에 대한 군민들의 자부심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위군은 4월 29일 군위군청에서 삼국유사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위원 1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바 있다. (054)380-6061

노덕현 기자

## 채호순씨 대상

### 탄허 휘호대회서

서도인들의 축제 '제5회 탄허 대중사 선서현양 전국 휘호대회'에서 채호순(한글 부문) 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조계종 4교구 분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범)와 오대산 불교문화 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5월 17일 월정사 경내에서 개최됐다.

휘호대회에서 우수상에는 한문의 박상철·육관주·이문옥·이상실씨, 한글 박순금씨, 문인화 오승희·우성순씨가, 특선에는 모두 75명이 각각 수상한 영광을 안았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서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개최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현성)는 5월 17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현성 스님, 혜묵 스님 등 1200여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2회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10개 팀이 경쟁한 이번 대회에서 장기타령으로 대상을 차지한 동국대사범대학부속 여고 간지연(2학년) 학생이 보검북지가족부장과 상장과 상금 및 트로피를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불산탈춤을 공연한 세명컴퓨터고 탈바라기 팀에게 돌아갔으며,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부채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려상은 석관중학교의 사물놀이, 인기상은 은곡공고 우도판국이 차지했다. 청담정보통신고 학생들의 전통국악을 접목한 비보이는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특별상을 차지했다. 한편,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중 조영숙 교사는 보검북지가족부장과 표창을 수상했다.

이상연 기자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